

학교의 새로운 변화 : 새로운 용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그다

The New School : New Container and Contents

윤 소 영*

Yoon So-Young

1. 학교는 변화되어야 한다.

토플러(A. Toffler)의 '제3의 물결'에 의하면, 산업사회에서 학교는 산업사회의 시스템에 적응을 잘하고 노동자로 생활하는데 익숙하도록 학습시키는 장소로 묘사된다. 즉 노동자들은 생산라인에서 기계적인 작동과 함께 시작하고 끝내기 위해 제때 출근하고 제때 퇴근할 수 있도록 시간개념을 익혀야 되며, 생산과정에 필요한 매뉴얼을 읽고 생산물을 썬할 수 있기 위해 언어와 사칙연산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이 학교라는 주장이다. 학교에 처음 입학한 초등학생 1학년은 수업시간 40분 동안 움직이고 싶고 친구들과 놀고 싶은 유혹을 꼭 참고 견뎌내며 읽고 쓰고 말하는 교육을 비롯해 여러 가지 학습능력을 길러야만 사회에 나가 건강하고 성공적인 근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현재 우리의 교육환경과 현실을 생각하면 토플러의 산업사회적 교육개념이 딱 들어맞는다. 현재 우리네 교육이 더하지도 빼지도 않는 구직활동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플러의 이러한 전제와 가정은 산업사회, 즉 그의 표현대로 하자면 '제2의 물결 사회'에 국한된다. 그가 말하는 정보화사회, 즉 '제3의 물결 사회'는 더 이상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치고 규율과 규제로 통제될 수 없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학교 말고도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며, 이를 지식체계화하는 방법과 활용하는 방향도 더 이상 글썽 경제의 축적(s stock)이 아니라 지식경제의 순환(a flow)으로 이동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과 발전 속도는 세계에서 최상위라고 한다.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은 OECD 국가 중 1

위¹⁾이며, 만 6세 이상 국민 10명 중 8명 정도(75.5%²⁾)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이용의 진전에 근거하면 토플러가 이야기 한 '제3의 물결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이다. 그러나 학교의 현실은 아직도 산업사회의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교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에서 학교는 어떤 존재로 남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일부에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반갑다. 한 예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다. 학교 내·외관의 디자인을 친문화적으로 개선하고 학교공간을 주변녹지 등과 연계한 문화공간으로 변신시킨다는 계획이 이 주요내용이다. 학생들이 하루 24시간 중 10시간 이상을 지내는 학교공간을 휴식, 체험, 교류, 놀이, 문화, 만남 등의 다양한 형태를 제공하는 생활문화공간으로 바꾸어, 학교의 폐쇄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개방적 이미지의 공간으로 활용하며,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는 새로운 문화의 패러다임을 조성하는 장소로 개방하려는 계획이 포함된다. 관련 홈페이지에서는 2008년 현재 전북 전주의 양지중학교가 시범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한다.

학교가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학교에 대한 생각과 가치를 변화시켜 이제 행동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사고-행동으로 이어지는 학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여가연구센터장

1) 정보통신부의 2007년 OECD 지수 관련 보도자료, 2007. 11. 9

2) 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7 상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결과, 2007

에 대한 새로운 변화는 몇 가지 원칙과 기준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본래 학교는 어떠한 곳이며, 어떠한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곳인지에 대한 질문에 충실하여 다음과 같은 생각을 덧붙인다.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이 학교라는 교육의 장소로서 적절한 용기(container)가 되고, 그 공간에 적절한 프로그램(contents)을 잘 담아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덧붙인다.

2. 학교는 '놀이'와 '삶'이다.

오늘날 학교(school)의 어원이 '스콜레(schole)'로부터 온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리스어 '스콜레(schole)'는 생활공간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뜻하며 학문적인 연구나 교육을 추구할 수 있는 장소와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학교'의 어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스콜레'는 조용함, 평화, 남는 시간(a spare time), 자유시간(a free time) 등의 뜻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여가(leisure)'의 어원으로도 알려져 있다.

어원적인 측면만 놓고 볼 때, 학교라는 공간은 의무로부터 해방된 아무런 구속이 없는 상태에서 학문적 연구나 교육을 추구하는 배움의 장소이어야 한다. 단적으로 학교는 일생동안 놀거리의 내용과 방법을 배우는 공간이며, 소통의 공간이자 학문추구(순수하게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의 전당이다. 학교의 역할에 대해 이어령 교수는 서로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서로의 의사와 마음을 전달하고 감동을 나누는 의사소통의 장소로 언급한 바 있다. 한준상 교수는 학교가 '놀이/삶'의 양식(문화)을 배우는 장소로 정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 모습은 배움을 '업(業)'으로 삼고 있는 학생들이 머무르는 장소이며, 학생들은 등교시간, 수업시간, 하교시간 등 구속력을 갖는 시간 스케줄에 따라 이동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팔고 사는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교사의 역할과 학생의 역할이 나누어지는 곳이다. 앞서 언급된 토플러가 지적한 '제2 물결 사회'의 노동자를 양성하는 공장과 같은 기능 이외에 기대할 수 없다. 근로자의 생활에 적합한 인간으로 길러지고 훈련받은 우리들은 근로자의 생활 밖의 모습에는 익숙하지 않다.

한국사회의 현재 고령화 속도에 근거해 보면 201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10%를 넘어 2025년이 되면 20%에 가까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인간 수명 70~80세 시대에서 100~120세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예측도 있다. 새들러(W. Sadler)는 그의 저서 「The Third Age : 6

Principles for Growth and Renewal After Forty」에서 인류는 계속해서 수명연장에 따라 인생에서 40대 이후 새로운 30년의 시기인 '제3기 인생(the third age)'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전통적 사회의 인생주기에서는 40대의 어느 시기에 인생의 정점에 도달하여 점차 하향하는 식으로 인생에서 정점이 하나만 있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인간수명이 계속 연장되는 고령화 사회의 인생에서는 40대 이후 또 하나의 정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때 제3의 인생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생활양식은 일(work)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일과 여가의 조화(Work-Leisure Harmonizing), 개인적 자유와 친밀감의 조화, 자기와 타인에 대한 배려의 생활태도이다. 즉 삶과 놀의 꼴을 변화시켜야만 제3의 인생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다.

3. 학교는 경계를 넓혀야 한다.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는 의사소통의 역할과 문화양식의 학습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은 학교에 국한시키지 말고 모든 사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책 「프로페셔널의 조건」에서, "지식 사회의 학교는 다른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식 사회에서의 교육활동은 더 이상 학교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사회 전체로 스며들어야 한다. 모든 종류의 고용 기관들이 배우는 기관이자 또한 가르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학교는 점차 사회에 속해 있는 기관이 아닌 사회를 구성하는 기관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역설했다.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을 강조한 셈이다.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를 업으로 하는 의무적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의 위치가 낮아지는 지점이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은 하루아침에 조성되지 않는다. 방과 후 학생들의 안전문제와 학교시설의 관리적 차원에서 많은 학교는 빗장을 굳게 닫아 두었으며, 기껏해야 저녁 시간동안 동네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공간으로 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교육공간과 시설, 그리고 기자재 등은 학생들의 전유물이 되지 오래이며, 그나마 그들 학생들도 방과 후나 휴일에는 접근할 수조차 없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학교를 졸업한 성인들은 자녀들의 자모회나 운동회, 공개강의 등의 목적으로 학교를 방문할 뿐 자신이 학교의 주인이며 지역주민으로 학교 시설을 당당하게 이용하려는 욕심을 내기 어렵다. 아마도 평생교육이나 사회교육의 중

요성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러한 ‘접근의 문제’에서 비롯될 것이다.

배움의 욕구는 학교에서 선생이 가르치고 학생이 배우는 과정 속에서 완전히 충족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유된 경험과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가정, 회사, 교회, 동호회, 가상공간(게임), 학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역할을 나누어 가질 때 완성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 기관이 사회의 모든 기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학교 안으로 이들을 끌어들이어서 다양한 의사소통의 교류를 갖자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주에서 무상으로 분할 받은 토지에 주립대학을 세우면서, 주 정부가 대학에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개방의 문제였다. 학교 캠퍼스가 하나의 지역사회를 이루며, 지역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도서관 개방은 물론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학에 학비를 낸 사람뿐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모두 자신이 원하는 범위에서 교육의 혜택을 통해 새로운 의사소통의 방식을 익히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대학은 자발적으로 지역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단지 취미활용의 기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우리나라 성인들은 학교를 졸업한 뒤, 음악 공연을 듣기 위해, 책을 읽기 위해, 미술품을 감상하기 위해, 바둑을 두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위해, 강연을 듣기 위해, 그리고 무한의 배우려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학교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학원에 다니거나 다른 주민 편의시설(시립 도서관, 구민문화시설, 국립체육공원 등)을 찾는 편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성인들은 이것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의 연장이며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을 때우거나 무엇인가 할 일이 없어서 하는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다.

물론 다른 사회기관에서 배움의 장소를 제공하여 평생 교육에 기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전국에 걸쳐 단일 기관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학교시설을 학생들이 수업을 파한 후에는 잠자는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깨달아야 한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학교는 주5일 학습제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한달에 두 번 쉬는 토요일, 학생들이 사설 학원으로 가면서 부모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의 ‘열쇠 아이’(열쇠를 걸고 다니는 아이라는 의

미)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이들을 위한 ‘따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걱정이다. 이러한 문제도 학교를 개방하면 해소될 수 있다. 성인들이 학교를 배움과 의사소통의 장으로 여겨 드나들게 되면, ‘내 아이’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늙은 양식에도 관여하게 된다. 어른들이 ‘열쇠아이’들을 주말에 따로 모아 자원봉사활동 측면에서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고도, 방과 후 학교에서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주말이면 학교 프로그램에 누구든지 함께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기보다는 함께 배우면서 즐긴다는 데 특징이 있다. 프로그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마추어인 성인과 아이들끼리 교류를 통해 얼마든지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곧 학교(school)가 건전한 늙은 방식(leisure)를 배우는 학습의 장(scholle)이 될 수 있다.

4. 학교, 변화를 시도하다!

학교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우선 폐교를 이용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전국적으로 가장 활발하다. 개인적으로 폐교를 활용하여 스튜디오로 활용하거나(화성 창문초등학교 자리의 창문아트센터 등), 염색이나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여주군 강천초등학교 자리 여성생활사 박물관 등), 지자체의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문화활동공간으로 이용(강원도의 ‘뉴스타트 강원문화’, 남해군의 ‘남해삼베마을’ 등)되고 있다.

그러나 폐교의 문화공간으로의 활용사례는 더 이상 학교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공간적 의미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학생들이 배움의 터로 자리 잡지 못한 죽은 공간을 재활용할 때 문화와 만난다는 것인데,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학교가 의사소통과 배움의 장소로서 역할을 다할 때 문화와 만나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일본 지바 현에 있는 이치가와 시(市川市)에 위치한 제7중학교는 “가까운 지역 속에 아이들로부터 고령자까지 함께 생활하는, 세대 간 서로 융합하고, 돕고, 발전하는 것이 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임을 주장하면서, 학교공간과 노인 복지시설(Care House, Day-Care Center), 아동보육시설, 문화센터를 함께 입체적으로 건설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예시한 전주의 양지중학교를 시범으로 하여 진행할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취지가 비슷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이 살아있는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삶과 늙은 장소로 경계를 확대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최근 몇몇 대학에서 지역 주민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주민들이 캠퍼스 공간을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장 허물기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성공회대나 중앙대, 고려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단순히 담장만 허문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교육과 문화가 살아서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담을 허문 캠퍼스를 산책하고 드나든다는 것과 그들이 배움의 욕구를 학교를 통해 충족시킨다는 것은 아주 다르다는 사실이다. 이왕 학교의 담장을 허물었다면 일본 이치가와 시의 제7중학교나 전주의 양지중학교처럼 '학생들과 모든 주민들을 주체로 담는 용기(container)'로서 '다양한 프로그램'(contents)들을 함께 공유해야 할 것이다.